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사도 2, 14ㄱ. 36-41  
**[화답송]** 시편 23(22), 1-3ㄱ. 3ㄴ-4. 5. 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1베드 2, 20-25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 1-10

성가	8시 미사	입당 55	봉헌 218 220	성체 181 176	파견 235
	11시 미사	입당 55	봉헌 218 220	성체 181 176	파견 어머니의 마음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4주일(5월 11일)		부활 제5주일(5월 18일)		부활 제6주일(5월 25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이엘리사벳(자영)	이바로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김길베르토(광호)	이바로로(명국)	최다니엘(대연)	강요한(신호)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문골롬바(지영)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김엘프레다(수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닥치는 대로”

먼저 말을 꺼내기조차 미안한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갓 사제가 되어 첫 미사를 드리며 돌아다닐 때, 동창 신부가 첫 강론을 하면서 자신을 목자가 아닌 목동 개로 소개한 것이 기억난다. 아마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직무와 자신이 견주어지는 것을 가당치 않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양의 영성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말이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 ‘착한 양, 순한 양’ 이기도 한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것이다.

양의 시력은 9~13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 태생적인 이유로 서로 몰려다니며 방어할 수밖에 없고, 인도자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목자에 대한 양의 수동적 의존도는 가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언젠가 라디오 사연에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아직 돈도 더 벌어야 하는 등등의 이유에서 지우기로 하였다는 사연이었다.

그래도 첫 아기인지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알려 드리고 싶기는 했던지, 변명 섞인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얘야, 인생은 닥치는 대로 사는 거더라.” 하셨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그때부터 그 사람의 가훈을 ‘닥치는 대로’ 라고 정했다고 한다.

나는 그 어머니의 지혜에도 놀랐지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아들의 태도에도 놀랐다. 그 아들은 계획을 바꿔 아들을 낳았고, 가훈도 멋지게 써서 잘살고 있노라는 사연으로 끝맺었다.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셨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알 도리도 없다. 그런데 ‘닥치는 대로’ 처럼 믿음생활을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을까 싶었다.

우리네 인생이 고달픈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

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닐까? 감사의 에너지가 부족한 이유도 이런 탓이 아닐까? 마음을 접고 나서도 미련이 남고, 그래서 또 불안해지고 걱정이 더해지는 것의 해법도 여기서 찾으려면 어떨까?

하여간 그래서 나도 본당 사목 지표를 ‘닥치는 대로’ 라고 정해서 본당 주보 위쪽에 써 붙였다. 세례를 받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새 부모도 생기고, 새 이름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띠는 모두 양띠가 되어야 하리라.

김종성 사도요한 신부  
인천교구 논현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부르심에 대하여

성소(聖召, [라] vocatio)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나 선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들의 생활에 따라 구체적인 성소를 갖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성소의 가치를 존중해 왔습니다. 즉, 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 그밖에 다양한 성소에 대한 가치를 교회는 존중합니다.

이 가운데 교계적 사도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제성소입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스도가 제정한 여러 가지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신자가 생명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성소는 교회의 미래이자 교회의 존재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항상 사제들이 존속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마태 9, 36 참조).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반해 사제 지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교회에 비해서는 아직도 성소자수가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세속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감소추세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23세는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에서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제들을 항상 가지도록, 열심한 기도와 가능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가르칠 의무가 있다.” (11항)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성소란 인간이 만들어 내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이자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그냥 응답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어느 누구라는 특정인의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 육성의 최초 못자리인 가정을 비롯하여 본당, 수도회, 신학교 등 교회 공동체의 꾸준한 기도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성소자들이 더욱 깊이 하느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성소국장으로 있으면서 면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예비신학생을 만납니다. “엄마, 아빠가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니 그냥 신부나 되래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별 볼 일 없어서 신부나 되려고요.” “신부님 되면 편하게 살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신부님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예비신학생이 다 이렇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제, 주님의 일을 충실히 행하는 사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마태 9, 37.38)

조명연 마태오 신부  
인천교구 성소국장

말씀의 향기

성소, 진리의 증언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수확할 것은 많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한 결실을 맺도록 일하였습니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기도와 성경, 성찬례, 교회 안에서 거행하고 실천하는 성사들을 통하여, 또 형제애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긴밀한 일치를 이룰수록, 자비와 진리,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과 협력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많은 수확에 놀라고, 언제나 우리를 앞서시는 그분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찬미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인 은총에 맞게 수확할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이일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또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계약에 따라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강한 유대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제51차 성소주일 교황 담화문 요약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는 예수님과 이루는 유일무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느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맺은 것입니다.

모든 성소는 가는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을 하든, 봉헌생활을 하든, 사제 생활을 하든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씨앗에 담긴 은총의 힘을 얻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흠송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1베드 3, 15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열정과 숨씨를 다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자리에서  
우리를 알아보시는  
우리의 착한 목자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무르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애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웁니다.

글\_김성수 신부 / 그림\_김윤경

부르심 받은 이들의 참다운 기쁨은 주님께서 성실한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곧 주님의 제자이며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큰 이상, 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고귀한 이상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이 되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가톨릭전례

일곱째 계명-도둑질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5)

사유 재산의 중요성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나요? 타인의 재물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물리적인 생명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육체를 괴롭히면서 “너의 영혼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방의 재물을 침범하면서 인간 존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을 침범하는 도둑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회관계는 인간 상호간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애써서 마련한 재산을 타인이 도둑질해 간다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도둑질은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기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

사유재산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므로 사유 재산권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입니다. 7계명은 이 천부적 권리를 보호할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권입니다. 나의 소유물은 보호되어야 마땅하지만, 자신의 소유 중에서 다른 사람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 이웃이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의식주, 교육, 의료)를 갖지 못했는데, 나는 여분의 것까지 잔뜩 갖고 있으면서, “내 것에 손대지 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7계명은 누구나 지켜야 할 계명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재산을 정당화시켜 주는 원칙으로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원정신이 아닙니다.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의식주)을 조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분명한 위급 상황” (가톨릭교회교리서 2408항)에서 가난한 이들이 생존을 위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7계명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도둑질이 아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7계명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중산층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세값과 월세값이 폭등합니다.

결국 가장 가난한 사람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나”고 말하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마트에서 분유 하나 도둑질을 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7계명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계명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부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5월 11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세월호참사희생자	요아킴회
	연	박준기	이골롬바(정연)
	생	세월호참사희생자가족	요아킴회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이야고보(재우)생일	이카타리나
	생	정 Peter/Jamie	김임마꼴라따가정
	생	윤엘리아(종진)	찬미성가대
	생	임루시아(윤택)	구안나(해순)
	생	정분다	유마리아
5월 13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5월 14일 수	연	이스테파노(상준)	최베네딕타(수영)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4	195	29	308
헌 금	\$534	\$1,207	\$29	\$1,770

< 교무금 > \$4,800

김민규(3-4) 구천남(1-6) 정병구(5-6) 정지문(5-6)  
 김상실(7-8) 정일환(1-4) 전숙희(5) 김순이(5)  
 남금지(5) 채용분(5) 김관숙(5) 임윤택(5)  
 이정연(5) 염명련(4-5) 이재우(4-5) 소명환(5-6)  
 이완수(5-6) 이병열(5) 김찬곤(1-5) 육승주(5)  
 김영희(5) 김용식(5) 심재구(5) 김옥녀(5)  
 이명란(5) 전문자(5) 신기수(5-6) 한서연(7-8)  
 김정복(5) 이순자(4-5) 채성일(5-6)

< 성소후원금 > \$260

소명환(5-6) 정일양(1-12) 정병구(5-6) 전숙희(5)  
 김순이(5) 채용분(5) 임윤택(5) 김용식(4-5)  
 김정복(5) 이명란(5)

< Bishop's Appeal >

정일양(1-12)

< 감사헌금 >

윤순의 \$100

~~~~ 오늘 간식은 노소피아/황아가다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오늘은 성소주일(착한목자주일)입니다.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 오늘 8시미사와 교중미사 중 강론은 예수회 강의근 요셉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 2차 헌금 안내  
5월 18일(다음주) : Catholic Charities

◆ 첫영성체 : 5월 18일(다음주) 교중미사 중 김우섭 안드레아, 김이든 안드레아, 박진우 이진표 스텔라, 임보영 요한

◆ 본당신부님께서 북미주 사제 연수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5월 20일(화)부터 5월 24(토)일까지 평일미사 없습니다.

◆ 야외미사 안내  
6월 1일 교중미사 Joaquin Miller Park  
\* 8시 미사 있습니다.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추후 공지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평협회의 : 5월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서예교실 : 5월 1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프란치스코회 : 5월 18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구역장회의 : 5월 25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북가주 한인천주교연합골프대회(청소년사목기금마련)  
일시 : 5월 17일(토) 오후 12:30 집결(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Oakland  
참가비 : 부부 \$180, 개인 \$100  
도네이션 및 문의 : 김철우 가브리엘 510-910-2239

◆ 성물방에 교우분들이 주문하신 도서와 새 도서가 도착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5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5-6장      |
|---------|--------------|-----------------|
| 1 구역    | 5월18일(일) 6시  | 이인학 시몬 댁        |
| 2 구역    | 5월18일(일) 6시  | 임장만 베드로 댁       |
| 4 구역    | 5월24일(토)6시반  | 최환준 베네딕토 댁      |
| 5 구역    | 5월11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6 구역    | 5월17일(토)5시반  | 이기희 베로니카 댁      |
| 7-1 구역  | 5월24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 구역  | 5월17일(토) 6시  | 교육관             |
| 8-2 구역  | 5월31일(토) 12시 | UC Village 큰놀이터 |
| 9 구역    | 5월17일(토) 6시  | 김영준 사비노 댁       |

◆ 대건산악회 5월 정기 산행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집합시간/장소 : 오전 9시 반까지 성당 주차장  
직접 오시는 분 : 10시까지 Redwood Regional Park  
준비물 : 점심 및 물, 산행 필수품은 각자 지참  
문의 : 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847-3014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Hair Cut 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100을 트라이밸리 성전 기금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주일학교 소식                       |
|-------------------------------|
|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
| - 5월 11일 : 종강식                |
| - 5월 18일 : 첫영성체(합동미사/영어미사 없음) |

| 한국학교 소식                 |
|-------------------------|
| - 5월 17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 - 5월 18일 : 교중미사 중 노래 발표 |